

이 성탄절에는



한인상 장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성역을 베풀기 위해 오시기 오래 전에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의 대속의 권세로 우리를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인도하시고자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는 거의 기적이라고 할 만한 세상 여러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세계의 정상을 달리는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최신행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 그 밖의 것들을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거의 수개월 만에 아니면 더 빠른 주기로 세상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어지러움과 다툼과 불화와 슬픔과 서로를 죽이는 송사와 전쟁들의 소문을 듣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컴퓨터에 매달려 바쁘니다. 모두들 나름대로의 바쁜 일정에 쫓겨 이곳에서 저곳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더 빨리 더 빨리 가고자 합니다. 모든 고속도로는 다만 이곳에서 저곳으로 신속히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득 태운 자동차로 가득 매워져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는 조금 여유를 갖고, 바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과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께로, 평강의 왕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재

점검하고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8~30)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성탄 절기를 맞아 주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고 거듭해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곧장,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빌면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좌로부터 제1보좌 한인상 장로, 더블류 유진 헨슨 회장, 제2보좌 샘 시마부꾸로 장로

새로 조직된 북아시아 지역 및 지역 회장단

대관장단은 1991년 10월 1일자로 2개의 새로운 지역이 조직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두 개의 새로운 지역이 조직됨으로써 교회의 지역 수는 모두 22개가 되었다. 두 지역 중 하나는 북아시아 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 지중해 지역이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
제1보좌, 한인상 장로; 제2보좌, 샘 시마부꾸로 장로. 그리고 유럽 지중해 지역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제1보좌, 리그랜드 알 커티스 장로; 제2보좌, 조셉 시 뮈른 장로.

새로운 북아시아 지역에는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며, 동경에 본부(지역 사무실)가 있으며, 이 지역에는 36개의 스테이크, 14개의 선교부 그리고

152,000명의 회원이 속해 있다.

유럽 지중해 지역의 본부(지역 사무실)는 프랑스 페르네 볼테르에 있으며, 18개의 스테이크, 18개의 선교부 그리고 81,000명의 회원이 이 지역에 속해 있다. *

새로운 지역 실무 책임자 및 관리본부 대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는 지난 11월 11일 신당 와드에서 교회 직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금년 10월에 조직된 북아시아 지역의 지역 실무 책임자 및 한국 관리본부 대표로 부름받은 두 분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 실무 책임자로는 유진 엠 기따 무라 형제가 부름받았으며, 한국 관리본부 대표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루디 밴더후번 형제가 부름받았다.

기따무라 형제는 1942년 1월 10일 일본 사가현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카사키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그후 유타 대학교에서 MBA(경영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였다.

유학을 마치고 무역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1977년부터 교회를 위해 일해왔다. 교회 내에서는 지부장, 지방부장, 스테이크 부장 및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루디 밴더후번 형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생하였으며 열 여덟 살에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브리감 영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등에서 회계 및 감사학을 전공하였다.

그후 미국 정부와 미 공군 및 국무성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1974년 이후로 교회 감사부에서 봉사했다. 1979년부터 1982년까지는 보잉 항공사 운영 감사로 근무하였으며, 1982년 이후로 교회 본부에서 국제 시스템 컨트롤러로 봉사하면서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등에서 봉사하였다.

아내인 밴더후번 자매와는 어려서부터 같은 마을에 살았으며, 둘 사이에는 5남 2녀가 있다. *

가사모임을 통한 전도

이 기사는 다카마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로부터 아시아 지역 회장단에 보내 온 네 편의 보고서 가운데 두번째입니다.

가사모임은 자매들의 바느질 솜씨와 요리법과 육아법을 발전시켜 주고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우리 가정에 사랑과 평화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즐겁고 훌륭한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과 축복을 나눈다면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 단위 조직의 회장단에게 일년 동안 “가사모임을 통한 전도”를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임무를 주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 I. 어떻게 가사모임에 많은 사람을 모을 것인가.
 - II. 비활동 회원이나 비회원인 가사모임에 왔을 때 어떻게 그들과 우정을 나눌 것인가.
 - III. 가사모임의 활동을 통하여 어떻게 새로운 사람에게 교회를 소개할 것인가.
 - IV. 그들이 일요일에 성찬식이나 상호부조회에 참석하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 다음은 각 단위 조직에서 세우고 있거나 행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 I. 어떻게 가사모임에 많은 사람을 모을 것인가?
 1. 활동 회원과 비활동 회원 모두가 가사모임이 열리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도록 연락망을 만든다.
 2. 저녁 가사모임 참석자 21명, 낮 가사모임 참석자 36명을 목표로 세우고 그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통상 가사모임 참석자는 약 14명이나 15명임.)
 3. 가능한 한 빨리 가사모임의 내용을 정하고 그것을 게시판에 붙인다.
 4. 매 달 상호부조회 뉴스지에 가사모임에 대한 광고, 전달, 가사모임의 결과, 그들이 한 활동과 조리법을 싣는다.
 5. 다음 가사모임에 할 사항들을 완전히 준비한 다음 가사모임에서 함께 나눈 즐겁고 훌륭했던 기억들에 호소하여 사람들이 참석하고자 하는 욕망을 강하게 해 준다.
 6. 비회원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7. 친구나 이웃에게 가사모임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함으로써 가사모임을 소개하고 그들을 모임에 초대한다.

8. 가사모임에서 배운 여러 가지 음식을 교회에서 점심으로 준비한다.
9. 일요일에 가사모임에서 만든 품목들을 전시한다.
10. 매 달 비활동 회원에게 보내는 엽서에 가사모임에 대한 안내를 넣는다.
11. 교회의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초대장을 주고 그들을 가사모임에 초대한다.
12. 선교사들에게 구도자나 영어회화반 학생들을 가사모임에 초대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들에게 초대장을 준다.
13. 활동 회원에게 비활동 회원을 한사람씩 할당해 주어 1년 동안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14. 신문에 광고한다.

마라가미 지부로부터 온 보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교육을 거의 100퍼센트 했을 때 평상시 가사모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비활동 자매들과 연락하여 그들에게 초대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8개월 후에 활동 회원과 비활동 회원 모두에게 유익한 바자회를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엌에서 쓰는 소품, 학용품, 앞치마, 장갑, 양말, 장난감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싸고 좋은 것을 사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비회원에게 가사모임에서 할 일들을 소개 할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자회에 오면 선교사들과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거나 물문경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바자에서 생긴 이익금을 교아원이나 장애자를 위한 기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그들과 함께 보낼 것인가에 대하여 시설 책임자들과 함께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나 간증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그들과 함께 우리가 계획한 게임이나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다음 호에도 계속됩니다. *

상호 향상 모임 (뮤추얼)에 관한 대답

최근에 신권 지도자들에게 배부된 공보(1991~2)에는 청남 청년을 위한 주례 활동인 상호 향상 모임(뮤추얼)을 위한 지침이 주어졌다. 교회 잡지 편집인들은 본부 청남 회장인 질십인 정원회의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와 본부 청녀 회장인 아테스 지 캡 회장에게 이 프로그램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편집인: 최근에 나온 이 발표는 새로운 방향 제시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주례 활동을 재강조하는 것입니까?

캡자매: 재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청남 청년들이 상호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모든 참여자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경험을 나누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었습니다.

상호 향상이라는 용어는 많은 부모님들이 청소년 시절에 익히 들어온 말일 것입니다. 평일 저녁에 갖게 될 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과거에 교회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활용되었던 일부 프로그램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가서 과거의 청소년들이 속해 있던 사회 구조를 재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당면하는 도전에 맞설 것입니다. 상호 향상 모임(뮤추얼)은 청소년들을 그 프로그램에 강제로 맞추려 시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청소년의 필요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종의 대상을 정해 놓은 실험실입니다.

편집인 : 이 프로그램이 전세계 모든 교회의 청소년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고슬린드 장로 : 지침에는 상당한 융통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 지도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남 청녀들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일까?”하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례 활동을 통해서 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활동(activity)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단지 흥미와 오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캡자매 : 어떤 청소년들은, “흥미있는 것만 할 수 없나요?”하고 말하는데, 흥미란 마음의 상태이지 활동이 아닙니다. 때때로 봉사 활동이 청소년들이 했던 다른 어떠한 활동보다도 흥미있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고슬린드 장로 : 이 활동을 통하여 청남 청녀들은 안식일에 배운 원리들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이해하게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배구나 농구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 향상 모임(뮤추얼)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편집인 : 만약 장로님이 와드나 지부 단위의 청남 회장이라면, 어떻게 올바른 활동을 계획하시겠습니까?

고슬린드 장로 :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가 열쇠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독과 청남 회장 및 청녀 회장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협심하여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익한 활동을 계획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독과 청남 청녀 조직의 회장들이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지도자들은 영의 속삭임을 민감하게 듣고 영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캡자매 : 활동 자체는 청소년에게 어떠한 결정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장차 성인이 되어 교회에서 행하게 될 여러 가지 지도력을 함양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는 모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활동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청소년들을 유능한 지도자로서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교회의 자원을 과소 평가하는 것입니다.

고슬린드 장로 : 그들은 훌륭한 지도자들입니다. 만약 이 젊은이들의 지도력을 의심하신다면, 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남 청녀 회장단으로서,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청소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젊은이들을 강화시키는 부모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부모님들과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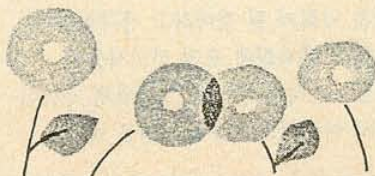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8월 17~18일에 수원에 있는 신평 와드가 성찬식 참석인원이 150명이 넘었으며 장로 신권 형제 수가 60명이 되어 신평 와드와 권선 와드로 분리해 13개 단위 조직을 가진 첫번째 스테이크 대회가 10월 12~13일, 양일간 열렸다.

이번 후반기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는 스테이크 센터 건물이 좁아서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으로 나누어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서울 서 스테이크의 조직이 현재 와드가 8개(시흥, 봉천, 신림, 노량진, 상도, 안양, 신평, 권선)와 지부 5개(오산, 반월, 과천, 사당, 독산)로 모두 13개의 와드/지부로 구성된 규모가 큰 스테이크이고 회원 수도 3,095명으로 스테이크 역원 모두 경기 지역에 스테이크를 조직할 꿈을 가지고 있다.

대회 주제를 “이는 시온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고 그 경계가 넓혀져야 하며 그 스테이크는 강하게 되어야 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은 마땅히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4)에 초점을 둔 이번 대회는 조정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토요일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는 ‘선교 사업과 성전 사업’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저녁 모임에서는 ‘시온의 경계를 넓힘’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다.

일요 총회 모임은 서울 지역(노량진 와드, 상도 와드, 봉천 와드, 신림 와드, 시흥 와드, 독산 지부, 사당 지부 등)과 경기 지역(안양 와드, 신평 와드, 권선 와드, 과천 지부, 반월 지부, 오산 지부 등)으로 나누어 두번에 걸쳐 모임을 가졌으며,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에



물몬경을 통해서 개종된 이야기 및 간증 당선작 발표

물몬경, 내 인생을 바로잡아 준 가장 값진 책

양명옥 자매(둔촌 지부)

물몬경 100만부 출판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물몬경을 통해서 개종된 이야기 및 물몬경을 통해서 얻게 된 간증” 공모에 응한 13편의 작품 중에서 대상 없이 가장 1편과 장려상 2편을 선정하였다.

이번호부터 한 편씩 게재하며, 계속해서 물몬경을 통해서 개종된 이야기나 얻게 된 간증을 보내주기 바라며 우수한 작품은 성도의 벅에 실거나 교회 본부의 신문사 및 잡지사에 보낼 것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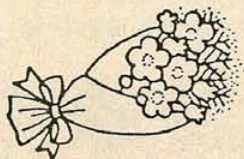
수상자

가작 : 물몬경, 내 인생을 바로잡아 준
가장 값진 책
(양명옥, 둔촌 지부)

장려상 : 물몬경-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물(김구환, 서산
지부)

장려상 : 물몬경에 들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전영자, 신당 와드)

편집자 주 : 시상식은 앞으로 있을 물몬경
100만부 출판 및 판매 기념
행사 때 할 예정이다.



그날은 몹시 더웠다. 1988년 7월말로 접어들면서 더위는 한층 기승을 부렸다. 언니집에서 앞으로 남편과 헤어질 문제 때문에 한참을 울고 나서 지친 듯 누워 있을 때, 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애, 잠깐 나와 봐. 미국 선교사들과 얘기 좀 해볼래?” 그 소리에 툭툭 부은 눈으로 현관쪽을 내다 보니 얼마 전 한번 왔었던 미국인들이었다.

그때 ‘저희는 성당엘 다니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정중하게 돌려 보냈던 그분들이었다. 그 선교사는 이 집으로 다시 가보라는 강한 느낌을 받고 왔다는 말을 했다. 나의 두 눈이 빨갛게 부었으므로 그들은 내게 무척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예상했었을까...

난 결혼 전 성당에서 영세까지 받고 열심히 다니다가 결혼 후에 하나님의 존재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내 결혼 생활이 편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난 도대체 그분께 잘못된 일이 없는데 늘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왔었다. 방문 앞에 걸어 둔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비탄을 퍼부었다. ‘도대체 당신은 뭐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다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일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가요!’ 하면서...

결혼초부터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늘 우리 부부는 툭툭대며 다투어왔다. 그러다가 더 이상 못참고 이혼을 결심했다.

가족들의 성의있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난 그동안 애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 세월이 억울한 양 이젠 나의 아이까지 떼어놓을 결심까지 한 것이다. 겨우 5살이 되어가는 아이를...

선교사들과 자세한 얘기를 하다보니 다시 눈물이 펄펄 쏟아졌다. 그들은 나를 애처로운 듯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자매님은 참 홀륭하신 분인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같이 특별한 분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다. 자매님이 더욱 강해지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난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새로운 기분을 느꼈다. 그동안 들어왔던 그 어떤 도움의 말보다도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 당시 난 면목동에 살았기에 그분들과 내집에서 만날 수는 없었다. 전화를 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지면서 그들은 내게 작고 까만책을 건네주었다. 바로 물몬경이었다.

이틀 후 드디어 난 내 남편과 이혼을 했다. 판사 앞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질린듯 결심을 재확인했다. 가엾은 내 아이... 그 아이는 영문도 모르는채 큰 눈에 가득 의심을 품고 나와 헤어졌다. 나는 마음을 강하게 먹으리라 다짐하며 새롭게 살기로 작정했다.

내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언니집에 묵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선교사들에게 전화해서 만난 일이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워 보였다. 내 처지가 가엾어 함께 울고 싶어하는 모습이었다. 난 다른 사람에게 슬픈 모습을 보여 주기 싫어 억지로 명량한 척했다. 내 가족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난 다시 나의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선교사들과 토론을 시작했다. 평소 내가

각각 502명, 536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브르스 알 스노우 서울 서 선교부장, 박병규 서울 성전장, 조정환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이 있었다.

이날 신권 성임자로 장로 21명, 대제사 6명이 성임받았다.

60여명의 서울 스테이크 합창단원과 고등 평의원 및 스테이크 보조 조직 회장단들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 지역 모임(스테이크 센터)에 참석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경기 지역 모임(수원 신평 와드)에 참석하였다.

특히 서울 서 선교부 소속인 평택 지부(지부장, 한상일)와 안성 지부(지부장, 이호정) 성도들이 모임에 참석하여 더욱 대회를 빛나게 하였다.

이제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는 1991년도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성공리에 치른 결과를 바탕으로 1992년도에 경기 지역에 새로운 시온의 스테이크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님께 그 방편을 간구하는 진지한 모임들이 준비되고 있다. *

기사제공 : 이영환 형제(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

광주 스테이크 대회

광주 스테이크 후반기 대회가 김제안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1991년 10월 12~13, 양일간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열렸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8-9)를 대회 주제로 했다.

12일의 신권 지도자 모임은 선교 사업과 가정 복음 및 성전 사업을 중심으로 스테이크 부장단이 인도하였고,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가족이 어려웠을 때 도움 받은 말씀과 주 중 하루를 정해 전회원이 참여하여 예수님처럼 방문교사로서 회원을 강화시키자는 말씀을 들었다.

일요 총회에서는 많은 연사가 공통적으로 나무와 열매를 비유로 들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더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권과 성신을 통해 나오는 사랑과 선행과 기쁨 등이며 궁극적으로 영생이니 이러한 열매를 얻기 위해 관심과 열의를 갖고 정성을 기울이며, 수고와 근면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아브라함과 니파이처럼 순종하고, 베냐민 왕처럼 봉사하도록 권고했다.

김제안 스테이크 부장은 열매를 얻기 위해 얼마나 수고해야 하는가에 대해 자신의 어린 시절 농사일에 참여한 경험을 말씀하고, 오늘날은 오염된 세상이고,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이나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얻고 영의 인도를 받아 변화되어야 하며 신앙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정기, 윤현철, 조세훈, 김환진, 이종택 형제 등 5명이 대제사로, 임성필, 한영근, 박석현, 김용락, 이백춘, 양광수, 김동희, 서영주, 최병철, 김선범 형제 등 10명이 장로로 성임 되었으며, 오랫동안 금성 지부와 송정 지부의 지부장으로 봉사한 정종운 형제와 이종택 형제가 명예롭게 해임되고, 서영원 형제가 금성 지부장으로 박석본 형제가 송정 지부장으로 각각 지지받았다.

특히 여수, 순천, 광양, 목포 등지에서 올라온 회원들은 민박을 하였으며 상당수는 다른 회원들을 모시기 위해 토요일 저녁에 내려가 안식일에 다시 돌아와 모임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600여명의 회원들이

스테이크 센터에 모여 풍성한 기쁨을 맛보았고, 초동협회는 방문자 센터와 신학원 건물을 활용해 3개반으로 나누어 따로 모임을 가졌는데 80여명이 참석하였다. *

기사제공 : 임종하 형제(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

“HL Ø L QO” 교회 아마추어 무선국 개국

관리본부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던 아마추어 무선국(일명 : HAM)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름으로 개국하였다. 1991년 7월 9일자로 허가된 단체국인 교회 무선국은 서울 중구 신당 6동에 위치한 교회 관리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옥상에 세워진 안테나 탑에 설치된 야기(YAGI) 및 지피(GP) 안테나를 통하여 일본, 홍콩 등의 관리 본부의 지역 사무실과 정규 교신도 하고 있다.

단체국 개설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다섯명의 무선 통신사들은 모두 교회 회원들이며 관리 본부에서 근무하는 한덕상, 김조수 형제를 포함한 통신사들은 다음과 같다.

한덕상 HL1IGC 강서 와드
오용근 HL1INM 도봉 와드
김봉상 HL1IRY 강서 와드
양해운 HL1KFK 영동 와드
김조수 HL2LIW 금촌 지부
한편 교회 무선국에 문의 사항이 있거나 무선 통신사 자격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회원들은 한국 관리본부로 연락을 바란다. *



바라던 종교였고 그러한 방법의 교회였으므로 마치 날 위해서 생긴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내 자신이 준비가 잘 되어 있었으므로 토론은 쉽게 끝났다. 그들은 진지한 내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많은 얘기가 필요없음을 느꼈다.

선교사를 만난 지 약 1개월 만에 침례를 받았다. 그때의 내 기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다. 그 긴장감, 황홀감, 새로 태어난 큰 기쁨, 그 많은 회원들의 꽃다발과 축복, 모두 다 내겐 전율이었다. 지금껏 많은 침례식을 보았지만 그때처럼 나를 위해 지부 전 회원이 빠짐없이 참석한 적은 없었다.

내가 침례 준비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매일밤 물론경을 읽으며 벅찬 감동에 자신을 억누를 수 없어 그 얇은 종이를 늘 눈물로 적시곤 했다. 어찌하여 이런 책을 이제야 보게 되었을까 하며.

난 기분 전환을 위해 부산에 큰 언니댁에 가게 되었다. 조카들과 언니는 내 눈치를 살피며 애써 내게 즐겁게 대해 주었다. 나도 그들과 즐거운 듯 얘기하며 앞으로 내 장래를 의논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난 다시 조용한 방에서 혼자가 되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물론경을, 내 영혼을 일깨워 주는 그 값진 책을 읽었다. 그러다가 난 비로소 가슴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내가 잘 한 게 무언가!’ 난 그동안 그의 탓만 해왔다. 그의 잘못된 비판하고 못마땅해 왔으며 내 행동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좀더 잘 했더라면, 그에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더라면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견잡을 수 없는 후회로 몸부림을 쳤다.

‘내 잘못이다. 모든 게 내 탓이다. 빨리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족 몰래 시외 전화를 했다. 내 말을 듣고 그도 부드럽게 나왔다. 그리고

편지도 주고 받고 서울로 올라와서 만나기도 했다. 나의 변화된 모습에 그는 다소 놀랐지만 아직 더 참고 기다리라며 도리어 당당하게 나왔다. 난 몹시 당황하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지만 끝까지 참기로 결심하고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쉽게 취직을 하여 직장 생활을 며칠 하고 있을 어느 날 밤 그는 아이를 데리고 언니집으로 찾아왔다. 아이는 그사이 몰라 보게 야위었고 꼭 남의 아이처럼 어색하게 보였다. 얼굴은 찌적찌적하고 낡은 옷에 어딘가 잔뜩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아이는 그동안 어른들 눈치만 보다가 그만 자기 자신의 감정 표현을 잊어버렸다. 난 와락 아이를 끌어안고 울어버렸다. 다시는 너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세 식구가 되어 모여 살게 되었다. 우리의 재결합은 가족들의 지탄을 받았다.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였다.

게다가 내가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에 몹시 불만을 품고 온 가족이 나를 비난했다. 당장 집어치우라며 차라리 집을 나가라기까지 했다. 남편도 합세하여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때 난 거의 절망적이었다.

차라리 교회를 선택해 버릴까. 그러다가 난 다시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교회를 선택하라고는 안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난 교회에 가지 못하는 대신 선교사를 통해 간증을 적은 글을 전해 주며 내가 우리 교회를 영영 잊은 게 아니고 당분간일뿐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려 주었다.

그는 그후로 매일 밤 술로 항상 새벽에 귀가하면서 나를 다시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난 그전처럼

행동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취해서 자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를 위해 기도했다.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 곁으로 인도하소서!’

얼마쯤 지나서 그는 어떤 일인지 교회에 다녀도 좋다는 말을 했다. 얼마나 고맙고 반가웠던지... 내가 다시 교회에 간 날 형제, 자매들의 그 기쁨에 찬 얼굴들, 특히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복받치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면서 날 바라보던 그 선교사를 난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날 위해 많은 날을 금식 기도로 보냈다고 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즐거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교차하면서 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매일밤 거르지 않고 남편과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기를 1년. 주님은 내게 큰 축복을 안겨 주셨다. 우연한 기회에 그는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많은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친절하게 대해 주는 형제, 자매들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으며 참으로 다정하고 모범적인 가정으로 바뀌었다.

내가 침례받고 꼭 1년이 지나서 난 남편도 침례를 받았다. 침례 받는 날 그는 무려 3번이나 물속으로 들어갔어야만 했다.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힘들게 받는다며 그는 농담을 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모두 들어 주셨다.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그는 우리 지부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말일성도 회원이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시간을 눈물로 보내고 간증 때마다 눈물을 흘려 청녀들로부터 ‘울보 자매님’이라는 별명을 얻어 가며 지냈던 일들이 이젠 과거가 되어 버렸다. 비록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숙된 회원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게 된 일은 거의 기적적이었다.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우리를 바라보던 천정 식구들이 요즘은 우리를 부러운 듯 보시며 흡족해 하신다.

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날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신 그 선교사님께 감사드린다. 이젠 귀환한 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까지 나와 편지 왕래를 하고 있다.

“너희가 인내를 품어 온갖 고난을 참아 내기를 권고하노니...”(엘마서 34장 40절) “오직 인내와 모든 고난을 벗고 설 날이 오리라는 굳은 소망으로 이 모든 고난을 참으라”(엘마서 34:41)

나는 물론경이야말로 내 인생을 바로잡아 주었으며 참으로 훌륭하신 수많은 예언자들의 말씀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책이라는 것을 간증으로 갖고 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 그분의 축복이 더 한층 크다는 것을 믿고 있다. *

진승태 형제 금메달 획득

진주 스테이크 중앙 와드 소속의 진승태 형제가 지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주에서 개최된 제72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태권도, 핀급) 금메달을 획득했다. 현재 경남 체육 고등학교 3학년인 진 형제는 14년간의 태권도 경력 중 11년간을 선수로 발탁되어, 금년만 해도 전국 종별 개인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체육 과학 대학교 총장배에서 금메달을 받는 등 각종 선수권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으로써 전국 최다 메달리스트가 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미 한국 체육 대학교에 특기생으로 선발되어 졸업과 동시에 진학하게 된 진 형제는 진주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봉사하는 진현부 부장의 맏아들이다. *

선교사 훈련원 제 133 기

(1991. 10. 14~1991. 10. 25)

서울 선교부

강종남 장로 (정주 지부)
정인철 장로 (공주 지부)
엄재영 자매 (진해 와드)
최미옥 자매 (독산 지부)

서울 서 선교부

김옥수 장로 (대명 와드)
박기종 장로 (신당 와드)
김남희 자매 (송정 지부)
박숙진 자매 (속초 지부)

대전 선교부

양홍조 장로 (금산 지부)
정창훈 장로 (영동 와드)

부산 선교부

이기영 장로 (공주 지부)
김남준 자매 (둔촌 지부)
윤미옥 자매 (용두 와드)



뒷줄 좌로부터 : 정창훈 장로, 박기종 장로, 강종남 장로, 김옥수 장로, 양홍조 장로, 이기영 장로, 정인철 장로

앞줄 좌로부터 : 엄재영 자매, 박숙진 자매, 윤미옥 자매, 김남희 자매, 최미옥 자매, 김남준 자매